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2월 27일
제1885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제2독서 1코린 15,57-58)



〈예수 그리스도〉, 성 소피아 대성당 모자이크 벽화, 이스탄불, 터키

연중 제8주일 (다해)

제 1 독서 집회 27,4-7 | 말을 듣기 전에는 사람을 칭찬하지 마라.

화 답 송 시편 92(91)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제 2 독서 1코린 15,54-58 | 하느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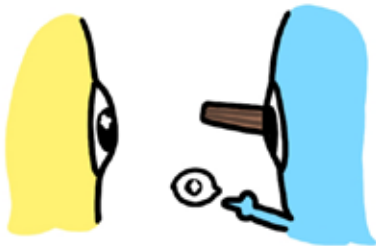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복 음 루카 6,39-45 |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³⁹ 이르셨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렁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⁴⁰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⁴¹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⁴²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⁴³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⁴⁴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⁴⁵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루카복음서 6장 41절

바로 말 콘텐츠

복음 묵상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을 잔부스러기 같은 ‘티’와 일반 성인 크기의 배에 달하는 ‘들보’가 함께 비교되는 해학의 말씀 속에서, 우리네 인간의 타고난 기질이 엿보입니다. 그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얻는 자기만족과 부듯함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서 그의 단점을 고쳐 주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하곤 합니다. “아우야! 가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와 비슷한 말들을 얼마나 자주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복음은 그 비판적인 시선을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돌리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남을 지적할 때 들이대는 엄격한 잣대로 먼저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저에게 오늘 복음 말씀은 큰 묵상 거리로 다가옵니다. 신학생들을 지도하며 ‘진실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형제적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등 다양한 요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잘못이나 단점이 보일 때면 어김없이 지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나 잣대가 나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부끄럽게도 저 자신에게는 무척이나 관대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누군가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에게 ‘본’(本)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상대방의 눈 속에 박힌 티를 빼내 주겠다고 신나게 소매를 걷어붙이기보다, 자기 눈 속에 들어 있는 들보를 빼내려는 노력을 상대방에게 보여 주는 것이 훨씬 감동적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쌍방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천 사도 요한 신부>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 재의 수요일 3월 2일(수)

‘재의 수요일’은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날이다. 교회가 이날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여 신자들의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하는 데에서 ‘재의 수요일’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이 재의 예식에서는 지난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복한 나뭇가지를 태워 만든 재를 신자들의 이마나 머리에 얹음으로써, ‘사람은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창세 3,19 참조)는 가르침을 깨닫게 해 준다. 재의 수요일에는 단식과 금육을 함께 지킨다.

복음

프란치스코 교황 사순 시기는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여정

사순 시기는 우리의 내면과 타인을 향한 겸손한 내려감입니다.

구원이 영광을 향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순 시기는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여정 동안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머무릅시다.

십자가는 하느님의 침묵의 ‘사도좌’입니다.

매일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봅시다. 하늘로 가지고 가서서, 매일 당신의 전구 기도 안에서, 아버지께 보여주시는 그 상처를 바라봅시다.

매일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봅시다. 그 상처 구멍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허, 우리의 결점들, 죄로 인한 상처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공격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두 팔 벌려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 구멍에서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곳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지를 쫓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지고 없는 것들 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인 성령께 돌아옵시다. 우리는 항상 먼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례 찬미가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에 빠진 먼지’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 기도하기 위해 돌아옵시다.

그러면 탄식과 체념의 재를 태워버릴 찬양의 불을 발견할 것입니다.

행동과 실천으로 표현하는 마음의 회심은 하느님의 행동의 우선권에서 시작되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를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과시하는 우리의 능력이나 공덕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분의 은총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정의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진실한 관계’라고 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순 시기

‘사순 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성목요일’의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이다. 이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부활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사순’(四旬)은 본디 ‘40일’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이 숫자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이를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한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 40일간 재를 지켰고(탈출 34,28 참조), 엘리야도 호렙산에 갈 때 40일을 걸었다(1열왕 19,8 참조). 예수님께서도 공생황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시며 유혹을 받으셨다(마태 4,1-2 참조). 이처럼 40이라는 숫자는 **하느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정확의 기간**을 뜻한다.

주님 부활 대축일을 기쁘게 맞이하려면 이 사순 시기 동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간에 희생과 극기의 표징으로 **금육과 단식**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한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재의 수요일과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금육과 단식을 함께 지키고 있다. 금육은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단식은 만 18세부터 만 60세의 전날까지 지켜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36조 참조). 이러한 희생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한 나눔으로 드러나야 하므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완성되어야 한다.

사순 시기 동안 거행하는 전례는 신자들이 주님 부활 대축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이 기간의 미사 때나 말씀 전례에서는 ‘알렐루야’와 ‘대영광송’은 바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의의 색깔은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이다. 신자들은 ‘십자가의 길’ 기도를 자주 바침으로써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며 그 뜻을 새기고자 한다.

- 2021년 재의 수요일 강론 중에서

<전문 보기 :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1-02/papa-francesco-quaresima-ceneri.html>>

1 요한회 월례회의

- 일시 : 2월 27일(일) 오전 11:30 (나눔터)
- 문의 : 김 안드레아 (703) 517-1574

2 재의 수요일 예절 및 미사 안내

- 일시 : 3월 2일(수)
오전 10:30 십자가의 길
오전 11:00 재의 예식과 미사
오후 7:30 재의 예식과 미사
- 지난 해 성지주일에 나누어 드린 성지가지를 본당 입구 수거함으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수요일에는 단식과 금육을 지킵니다.
 금육제를 겸한 단식제는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지켜야 합니다(교회법 1251조 참조).

3 2022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약정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를 약정받습니다. 2022년 우리 본당에 할당된 금액은 \$161,000입니다.
-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참조 :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4 2022년도 바오로딸 성경학교 1학년 오리엔테이션

- 대상 : 1학년 신입생 등록자 전원
- 일시 : 2월 27일(일) 오전 11:30 (A-1,2)

5 2022년도 바오로딸 성경학교 1학기 개강(1,2,3학년)

- 3월 1일(화) - 6월 30일(목) (4개월)
- 우편통신 / 이 러닝(E-learning)으로 진행
- 신규약 입문 2년 과정 추가 모집 : 2월 28일까지 연장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 275-0691

6 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토요 신심

- 일시 : 3월 5일(토) 오전 9시 (토요 신심)
 오전 10:30 (토요 신심 미사)
-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7 정 아가다 수녀님 환송 미사

- 2016년 8월부터 함께 해 오신 정 아가다 수녀님이 본원으로 소임 이동하십니다. 수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 수녀님 환송 미사: 3월 6일(일) 오전 10시

8 구역 봉사자 회의

- 일시 : 3월 6일(일) 오전 11:40 (B-3,4)
- 소공동체 봉사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9 주일학교 대면 수업 재개

- 3월 6일(일)부터 주일학교 대면 수업이 재개됩니다.
- 수업 시간 : 학생 미사 후 오후 3시
- 많은 학생들이 대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0 주일학교 성사반 모집

- 모집 대상 : 첫영성체반 (3-5학년) / 견진성사반 (7-12학년)
- 수업 일시 : 3월 2일 (수) 오후 7:30 첫 수업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문의 : spc15.re.admyc@gmail.com

11 유아세례

- 일시 : 3월 12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월부터 모임 재개 •

3월부터 모든 모임을 **대면으로** 전환합니다. 단, 당분간 미사와 모든 모임에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수난 40일간의 여정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스해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이사야서 53,5)

3월 3일(목) - 4월 13일(수)

월요일-토요일(오전 5:30)	십자가의 길과 미사
주일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예식

- + 성 목요일(4월 14일) 주님 만찬 미사 오후 8시
- + 성 금요일(4월 15일)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주님 수난 예식 오후 8시
- + 성 토요일(4월 16일) 파스카 성야 미사 오후 8시

희상성인학교

2022년 봄학기 수강 등록 안내

- 봄학기 일정** 3월 15일(화) - 6월 17일(금)
- 등록 접수** 3월 6일(일), 13일(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친교실)
- 등록금** 60불(점심 없음)
- 문의** 김명희 울리안나 (703) 217-2775

* 안내서 및 신청서는 성당 입구 주보대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2월 20일(연중 제7주일)

주일헌금	\$ 5,736.00
교무금	\$ 10,335.00
교무금(신용카드)	\$ 6,200.00
감사 헌금	\$ 750.00
2차 헌금	\$ 2,716.00
온라인 봉헌	\$ 3,035.00
합계	\$ 28,772.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3월 3일(목) 오후 5:00-6:00
3월 4일(금) 저녁 8:00-9:00
3월 6일(일) 오전 6:00-7:00


1. 신부님 주일 강론
2. 특강 : 황창연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 - 평창으로 간 신부님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코로나19 본당 수칙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DC에서는 오미크론에 천 마스크나 덴탈용 마스크는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KF 94**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당 미사 참례와 모임시에 **KF 94**를 써주시고, 평일 미사에는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세요.



1. 미사 참석자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2. 성당에 들어갈 때는 꼭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3. 평일미사 때는 **표시된 좌석**에 앉아 주세요.
4. **회합을 할 때에 마스크를 꼭 쓰고** 합니다.
5. 회합 장소는 사전에 사무실과 협의합니다.